



# 한국과 일본의 톱 선수가 격돌!

한국과 일본의 톱 선수에 의한 "제3회 한일 대항전 경륜"이 도쿄 오발 케이오카쿠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은 실적 No.1레이서, 박용범을 포함한 16명, 일본 측도 SS반 무라카미 히로유키 등 16명과 호화 멤버가 모여, 한일의 자부심과 명예를 건 뜨거운 싸움이 펼쳐진다.

## KOR vs JPN



김민철

박용범

무라카미 히로유키

사토우 토모카즈

### 제1회 ~ 제2회 대회 결승 플레이백

#### 2012.3/30 이토 온천 경륜장

김 치범 - 최 순영 - 이 명현 - 김 영섭, 카미야마 타쿠야, 이나가키 히로유키 - 무라카미 요시히로 - 미야케 신야가 주회. 레이스는 잔여 3바퀴 남은 지점에서 부터 움직였다. 이나가키가 치고 나가면 김치범은 응전 태세. 그리고 잔여 3바퀴 남은 지점부터 두 선수 동시에 스피트. 그러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두 사람은 2코너에서 얽혀 낙차한다. 이로써 최 순영이 잔여 3바퀴 남은 지점의 백앞에서 떨어져 나와 최종 홈에서 힘이 빠져, 그 틈에 이명현이 쫓히기. 김 용섭이 그 뒤를 잇고 3번째에 오른 무라카미는 2코너에서 쫓히기로 두 사람을 덮친다. 2센터에서 이명현을 잡은 무라카미가 패승.



냉정하게 좋은 위치를 확보에서 무라카미 선수가 쫓히기로 압승 무라카미 요시히로 선수

#### 2013.11/3 광명 경륜장

사토우 토모카즈 - 후시미 토시아키 - 카즈세 타쿠야 - 소노다 타쿠미, 공민우 - 김민철 - 박용범 - 홍성광이 주회. 잔여 3바퀴 남은 지점 2센터에서 공민우 등 한국세가 상승. 잔여 2바퀴 남은 지점 1코너에서 제압된 사토는 이에 지지 않고 한국세 분열에 나선다. 2코너에서 공민우가 페이스를 올리자 사토는 1차신 낮춰 3번째의 박용범과 나란히 달린다. 박용범과 사토가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무풍으로 공민우를 추격하던 김민철이 3코너에서 쫓히기 시도. 그런 와중 사토는 스피트가 늦어지고 박용범은 김민철을 쫓는다. 그러나 그대로 김민철이 덮고 나가 1착, 2착도 한국의 박용범, 일본세는 마지막 힘을 낸 사토의 3착이 최상 이었다.



한국세가 압도, 순번 쫓히기 에서 김 민철 선수가 승리 김민철 선수

### 시리즈 전망 Korea vs Japan

올해 3회째를 맞은 "한일 대항전 경륜". 양국의 탑 레이서가 참가, 자국의 위신을 건 뜨거운 배틀이 전개된다. 한국 선수 중 가장 실력을 뽐내는 것은 박용범이다. 2011년 경륜 훈련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2013년 광명 경륜장에서 개최된 일간 스포츠 컵에서 완전 우승을 달성하는 등 추입을 주제로 한 전법에 쫓히기를 접목시킨 기술로 두각을 나타냈다. 2014년은 한층더 충실한 한해가 되어 대상 경륜을 세번 제패. 한국 경륜계 톱의 지위까지 단번에 올랐다. 지난번 한일 대항전 경륜에서 준우승을 이룬 한국의 절대적 에이스가 이번에는 더욱 더 다듬어진 예각을 무기로 선두 자리를 빼앗으려 온다. 지난 대회의 승자 김민철은 대표팀의 주장이자 한국세의 정신적 지주로 군림한다. 큰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는



무라카미 히로유키



나카가와 세이치로우

## 자국의 위신과 명예를 건 싸움 한일 탑 레이서의 격렬한 대결!



박용범 김민철

베테랑은 대회 연패를 목표로 일본의 앞을 막아설 것이다. 라인전이 주체가 되는 일본세로서 V에 가장 가깝다고 꼽히는 것은, 카와무라 코오지와 팀을 짜는 무라카미 히로유키다. 2014년 2월 전 일본 선발 경륜을 제패, 3년 만에 S급 S팀에 복귀, 오랜만에 출전한 GI 경륜제에서도 2승을 거뒀다. 뛰어난 각력을 무기로 일본의 축으로서 한국 세력을 요격할 것이다. 기동형은 이 외에도 사토우 토모카즈, 나카가와 세이치로, 키리야마 케이타로우 등 강력한 포진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 선수는 나카가와로 2014년 아시아 대회 스프린트를 제패하고 이어 처음으로 GI결승에 진출 하는 등 경륜 선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번 대회 에서도 파괴력 발군의 스피드로 일본 세력을 이끌며 한국 세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 토너먼트 해설 Korea vs Japan

**포인트제에 의한 토너먼트**  
한일 대항전 경륜은 3일 간의 개최로 한일 각 16명씩 총 32명이 출전한다. 레이스도 한일 각 4명씩의 8차 출전으로 하루 4경기가 실시된다. 첫날과 2일째는 예선이 열리며 착순에 따라 포인트가 주어진다. 첫날 예선 1에서는 1착이 15포인트, 2착이 11포인트, 3착이 8포인트, 2일째의 예선 2는 포인트가 조금 올라가, 1착이 20포인트, 2착이 15포인트, 3착이 11포인트다. 예선 1,2포인트 상위자가 결승에 오르지만 일본인 선수 포인트 상위자 4명과 한국인 선수 포인트 상위자 4명이 결승 진출의 권리를 얻으므로 역시 한일 4명씩의 8차 레이스가 된다.

#### 한일 대항전 경륜 개정 프로그램 표

제1일째	제2일째	제3일째
예선 1 4R	예선 2 4R	결승 1R
◆포인트 표		특별 우수 1R
예선 1 경주	예선 2 경주	특선 2R
1 착 15	1 착 20	일본 포인트 9~16위(8)
2 착 11	2 착 15	한국 포인트 9~16위(8)
3 착 8	3 착 11	
4 착 6	4 착 8	
5 착 5	5 착 6	
6 착 4	6 착 5	
7 착 3	7 착 4	
8 착 2	8 착 3	
기권 1	기권 2	
실격 결장 0	실격 결장 0	